

### 1 찬양과 기도

- 찬송 : 새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.

### 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

#### · 하나님께 따질 수 없는 인간

- 11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.
- 12 이보게,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겠는가? 그분께 '무엇을 하십니까?'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?
- 13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
- 14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?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?
- 15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이니겠나.
- 16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.
- 17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.
- 18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.
- 19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 주겠는가?
- 20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,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.

#### · 의인과 악인 모두 멸망함

- 21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 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.
- 22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.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?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.
- 23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실 것이네.
- 24 이 땅이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.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?

### 3 묵상하기

빌닷은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,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관점으로 욥에게 훈계했지만 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. 욥은 '의인이든 악인이든 얼마든지 축복과 재앙을 받을 수 있으며,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 사람이 토를 달 수 없다'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욥은 마음이 괴롭습니다. 고통의 이유를 알지도 묻지도 못한 채 그저 견뎌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맞닥뜨린 것입니다.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도, 심지어 믿음이 좋다는 친구에게도 원인 모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는 늘 원인을 찾으려 애쓰지만,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주신 삶의 과정임을 잠잠히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합니다.

### 4 적용하기

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. 그렇기에 내가 겪는 상황들, 고민하는 문제들,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'왜 나에게 이런 일이?'라며 고난의 이유를 찾는 데만 집중하기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. 그럴 때,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성장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.

###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(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)

- 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나요? 그 시간을 지나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?
- ② 그동안 하나님께 "왜?"라고 물으며 이유를 찾던 일에 대해, 이제 그 질문을 어떤 고백으로 바꿔보면 좋을까요?

### 6 기도하기

-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
- ②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해도 모든 과정이 저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신뢰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-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.

### 1 큐티하기 전 기도

- 찬송 : 새 83장 나의 맘에 근심 구름
- 기도 :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.

### 2 성경본문 (우리말성경)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? 1 2 3

- 12 이보게,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겠는가? 그분께 '무엇을 하십니까?'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?
- 13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
- 14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?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?
- 15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.
- 16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.
- 17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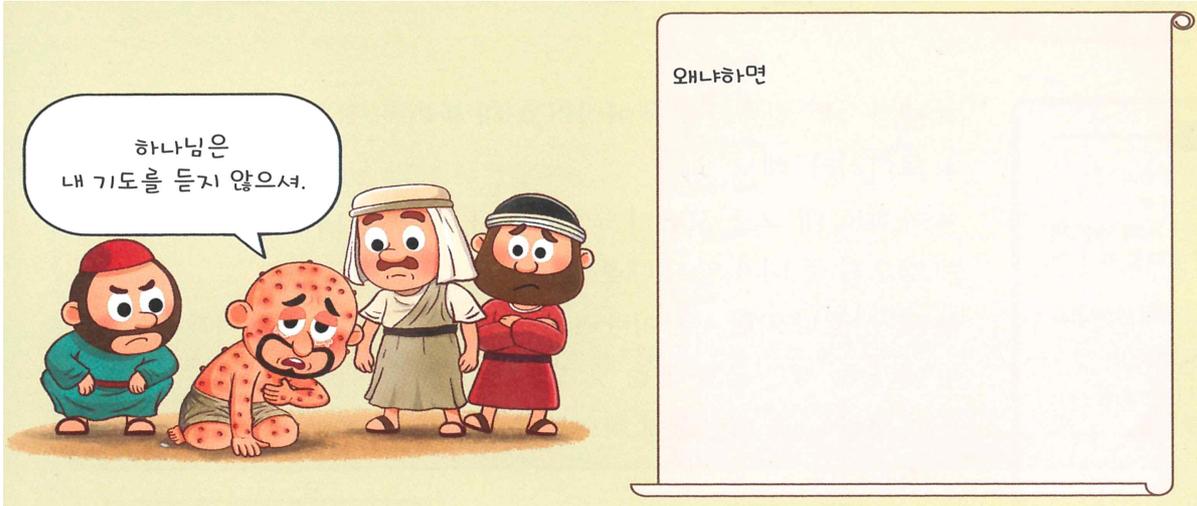
#### • 궁핍 사전

- \*라합: 신화적인 동물로 바닷속에 사는 신비한 괴물, 여기서는 교만하고 사악한 자를 뜻함
- \*굴복: 완전히 항복하여 엎드림
- \*논쟁: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
- \*간구: 간절히 바라고 구함
- \*음성: 사람의 목소리나 말소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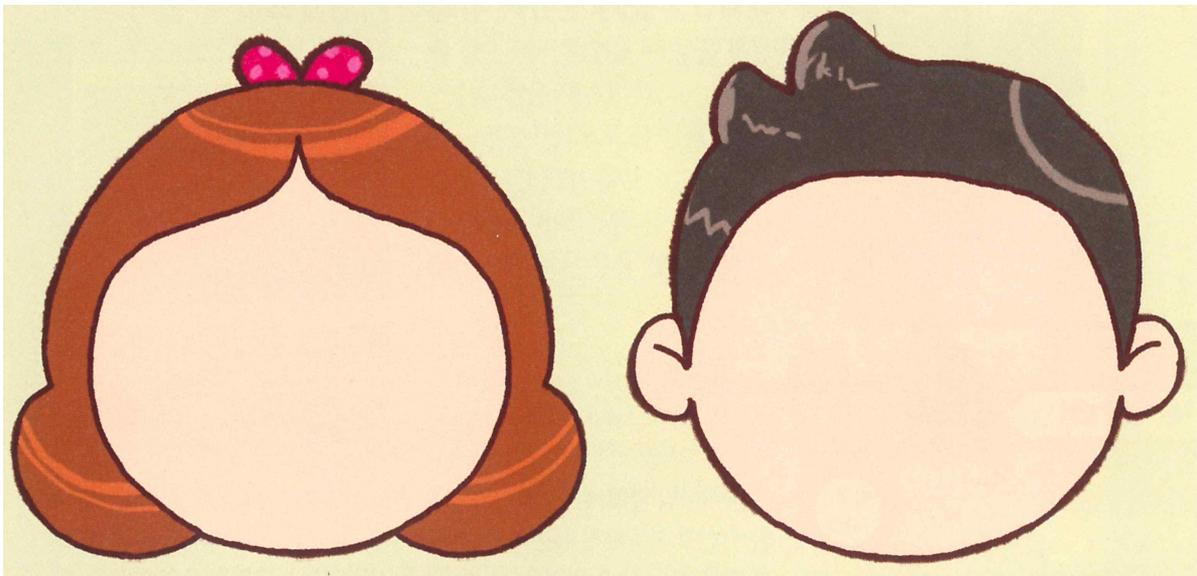
#### • 말씀 씨앗

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 악한 무리들도 꿈쩍 못하고 망해요. 누가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있을까요?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어도 하나님께 반대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어요. 욥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을 고난 가운데 두셨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어요.

3 말씀 새싹 - 옅은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. 옅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(17절)



5 말씀 열매 -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? 그때 내 마음이 어땠나요? 아래 얼굴에 나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.



**•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**

옅은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많은 상처를 내신다고 생각했어요.

**6 기도하기**

하나님, 죄로 얼룩진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요.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